몸짓으로 표현한 5·18 숭고한 희생

광주시립발레단 'DIVIN' 간담회
7월14~15일 문예회관서 3회 공연
美 활동 광주 출신 주재만 안무가
"시각적 요소, 다양한 해석 기대"

광주시립발레단 단원들이 'DIVIN'을 연습하는 장면.

'숭고한', '신성한', '천상의'라는 뜻을 지닌 영어 단어가 있다. 바로 'DIVINE'이 그 것.

'광주 5·18' 하면 여러 말들과 어휘가 떠오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DIVINE'이다. 5·18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상징할 때 어쩌면 'DIVINE'보다 더 적절한 어휘는 없을 것 같다.

광주시립발레단이 제134회 정기공연 작품으로 'DIVIN'을 무대에 올린다. 오는 7월 14일(오후 7시 30분), 15일(오후 3시·오후 7시 30분) 모두 세차례.

시립발레단은 15일 문예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기공연 'DIVIN'에 대한 제작 과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작품 설명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문예회관 재개관 기념으로 열린다는 데 외형적인 의미가 있다. 그동안 보수 공사를 통해 대극장, 소극장을 업그레이드 하고 무대의 빠른 전환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것에 대한 일련의 결과를 선보이는 자리다.

보다 더 깊은 의미는 5·18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승화해 광주만의 이야기가 아닌 세계적 보편적 작품으로 확장한다는 데도 방점이 놓여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 출신으로 프랑스 바뇰레 국제무용축제 최우수 무용수상을 수상한 주재만 안무가, 컴플렉션 아카데미 교수인 조안무가 질리언 데이비스, 주연을 맡은 강은예, 이택영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해설과 연습 과정 등을 이야기했다.

박경숙 예술감독은 "그동안 기존의 5·18' 작품과 다른 차별화된 작품을 올리기 위해 무대 장치를 비롯해 무대 의상 등을 세밀하게 준비했다"며 "폭력과 불의에 항거해 민주주의 토대를 이룬 숭고한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분노와 고통, 희생과 용서, 치유의 과정을 원초적 몸짓으로 펼쳐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시립발레단도 21세기적인 트렌디한 작품을 통해 역량 강화는 물론 브랜드 가치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자는 또 다른 목적도 함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재만 안무가

주 안무가는 이번 작품에서 시각적인 요소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그동안 시네마틱한 안무를 많이 해온 일련의 연장선과 같은 작업이 펼쳐질 것이라는 얘기였다. 고전적인 발레라기보다 컨템포러리한 작품이라는 의미였다.

그는 "이번 작품은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5·18에 대한 수많은 감정을 음악에 맞춰 순간순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뒀다"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날의 아픔과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작품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인종 혐오 , 차별과 인권 탄압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작품은 큰 타이틀만 있고 대본도 없다. 모든 것은 무용수의 몸동작, 무대장치, 조명을 보고 관객들이 자유롭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수많은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보고 '관객이 내가 무용수와 함께 있다'는 일종의 물아일체의 느낌을 받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생활한 주 안무가는 3년 전부터 한국에서 활동해왔다. 지난해 박 예술감독이 섭외를 해 이번 공연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작품은 모두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주제는 'Freedom'으로 '내가 침묵한다면', '외로운 길', '탄식', '누가 채워주려 나-애도의 노래', '구천을 떠돌고'로 구성돼 있다.

2장은 'Out of the darkness'로 '함께', '대화', '강물빛', '헌신'으로 짜여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은 'The Divine Human Beings'으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하나의 감정으로 추모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매월당 김시습의 삶과 작품 세계

'청소년들아, 김시습을 만나자-금오신화' 출간

매월당(梅月堂) 김시습(1435~1493)은 어렸을 때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을 만큼 영특했다. 조선 세종 때 한양에서 태어나 외할아버지에게 글자를 배웠고 세 살 때 이미 한시를 지을 정도였다.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문장으로 그는 주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15세 즈음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힘든 시기가 닥쳐왔다. 또한 21세 때 삼각산 중흥사에서 공부를 하던 중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는다. 의협심이 강한 그에게 이 사건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심대한 문제였다.

김시습은 공부를 접고 스스로 머리를 깎은 뒤 방랑의 길에 오른다. 이 시기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죽임을 당한 사육신들의 시신을 수습해 묻어준 일화는 유명하다.

31세인 1465년 경주 금오산에 입산해 금오산실을 짓고 '매월당'이라는 호를 갖는다. 그곳에서 그는 우리나라 최초 한문소설인 '금오신화'를 쓰는 등 주옥같은 작품을 창작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비롯해 뛰어난 시편을 번역한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청소년들아, 김시습을 만나자-금오신화'는 김시습 작품과 정약용 작품을 우리말로 옮긴 류수와 김주철이 김시습의 작품을 옮기고, 시집 '빗물 머금은 잎사귀를 위하여'를 펴낸 이삼남 시인이 다시 썼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금오신화'에는 모두 5편의 소설이 담겨 있다. '만복사 윷놀이'를 비롯해 '이색과 최랑', '부벽정의 달맞이', '꿈에 본 남염부주', '용궁의 상량 잔치'가 그것이다.

남원에 사는 양생이 만복사에서 부처와 윷놀이를 하고 소원대로 인연을 만나는 이야기를 담은 '만복사 윷놀이'는 인연과 시간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2부 '매화 그림자 달빛 아래 춤추네'에는 매월당의 시들이 수록돼 있다. '산골 집을 나서며', '농민들이 토란국을 끓이다' 등의 시들은 김시습의 담박한 감성과 일상을 바라보는 시심을 보여준다.

"지붕 머리 저녁볕은/ 꽃가지를 비춰 주네./ 빙글빙글 도는 물레/ 눈결 같은 실을 뽑네.// 고운 단장 숙인 얼굴/ 가득한 수심은 무슨 일인가./ 이 실을 다 뽑은들/ 관가 세금 주고 나면."

위 시 '누에 치는 아낙네'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관에 대한 횡포를 누에를 치는 한 아낙네를 통해 에둘러 노래하고 있다. 김시습의 시가 향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론(이치에 맞는 의견이나 주장) 등이 수록된 3부 '백성보다 더 귀한 것은 없나니'는 매월당의 삶과 더불어 사회와 정치를 바라보는 그의 식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먼저 백성을 생각하라', '동물보다 백성이 먼저니'와 같은 글들은 사회와 백성을 향한 매월당의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시선, 잔잔한 울림을 보여준다.

한편 뒷부분 '우리 고전 깊이 읽기'에는 '매월당 김시습의 삶',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금오신화', '김시습의 시와 정론과 서한문''이 게재돼 있다.

책 곳곳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송민규의 그림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서민들의 일상과 우리 산수의 정취를 그만의 필법으로 그려낸 작품들은 잔잔한 여운을 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간의 존재에 관한 물음 8월 27일까지 해동문화예술촌

지금까지 인간을 정의하는 무수히 많은 철학과 담론이 있었다. '생각하는 동물', '생각하는 갈대', '놀이의 인간', '유희의 인간', '도구의 인간' 등등….

그러나 어떠한 정의와 개념도 인간을 온전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저마다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이하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어 관심을 끈다.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이 오는 8월 27일까지 진행하는 '인간의 조건'전이 그것.

이번 전시는 매년 5월 호남 및 한국사의 주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다양한 주제전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중진 작가 김일용, 박승예, 임남진의 작품 37점이 출품됐으며 조각을 비롯해 회화, 드로잉, 영상 등 여러 매체로 다채롭게 전시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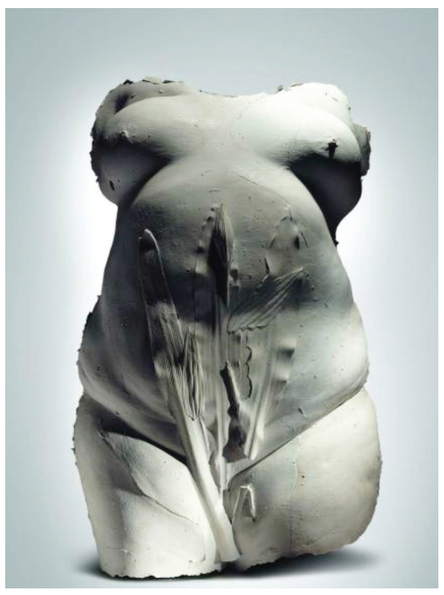
해동문화예술촌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무엇보다 인간의 존재와 실존에 관한 문제에 대한 물음을 모티브로 진행된다"며 "작가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인간을 묘사한 작품은 인간을 보다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김일용 작가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실제 인체를 본뜬 작품을 보여준다. 기존의 '빚어내거나' '깎는' 방식이 물질적 대상을 형상화하는 것이라면 작가는 인체 형상을 본뜨는 방식을 토대로 우리 자신을 대변한다.

박승예 작가는 가면이나 해골 등으로 나-타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일종의 상징적 매체를 차용하는 것이다. 그는 가운데 화면으로 침투하는 강박적 드로잉으로 인간의 본질에 도달하고자 한다.

오랫동안 '나'와 '사회' 등의 관계를 풀어온 임남진 작가는 이번에도 그 같은 문제를 자기 삶의 궤적으로 풀어낸다. 작품 변화과정은 시대 속 '사람들'의 삶을 유추해볼 수 있는 근거를 준다.

전시와 아울러 도슨트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


김일용 작 '존재없는 존재'

국악 공연 '부모님 은혜' '사철가' 20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5월은 여러 가지 수사가 뒤따르는 달이다. 80년 광주의 아픔과 정신을 떠올릴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 가정의 달, 계절의 여왕과 같은 표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인생'과 '효'(孝)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남도국악원이 마련한 국악연주단의 토요상설 국악 공연에서 '부모님 은혜', '사철가' 등을 만날 수 있다. 오는 20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전남 진도).

남도국악단은 이번 공연에서는 단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보자는 내용을 담은 단가 '사철가'를 시작으로 기악합주 '성금연가락에 의한 산조합주', 기악독주 '상령산 풀이'를 비롯해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을 알아듣기 쉽게 노래한 회심곡 중 '부모님 은혜'를 만날 수 있다. 또한 민요 '보렴', 연희 '김오채류 설장구'도 펼쳐질 예정이다.

국립남도국악원 공연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남도국악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에는 2022년 큰 사랑을 받았던 '춘향, 사랑이어라' 중 관현악과 무용을 재구성한 '광한루의 봄'과 '부용당의 사랑과 이별'도 준비돼 있다"며 "올해 새롭게 조성된 전시공간에서는 최첨단 IT 기법을 활용한 국악기 전시를 비롯해 실감형 전시 콘텐츠 등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연은 무료.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에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남도국악원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검은 먹, 한 점' 김호석 작가와의 대화

17일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

김호석 작가는 수묵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변용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때론 풍자적으로, 때론 따뜻한 인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더러는 역사 속 냉혹함과 비참함을 절제된 수묵으로 펼쳐왔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8월 13일까지 열리고 있는 전시 '김호석: 검은 먹, 한 점'과 연계한 작가와의 대화가 마련됐다. 17일 오전 10시 시립미술관 세미나실 및 5, 6전시실.

이번 작가와의 대화는 김호석 작가의 작품과 예술세계 설명에 이어 민병로 전남대 5·18연구소 소장이 참여해 질의를 한다.

김 작가는 이번 작가와의 대화에서 제작의 토대가 되는 작가의 인문학적 사유와 작품 제작 과정을 비롯해 5·18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신작에 대한 설명을 들려줄 예정이다. 무엇보다 5·18민주화운동과 작품과 연계된 질의와 토론은 작가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작가는 지금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과 역사를 관통하는 문제에 천착해왔고 그 정신을 놓치지 않으려했다. 최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해 낼 것인가 늘 고민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호석

정읍 출신의 김 작가는 홍익대 동양화과에서 수학했으며 동국대 미술사학과에서 '한국 암각화의 도상과 조형성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00년 제3회 비엔날레 미술기자상을 수상했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 김준기 관장은 "작가의 작품세계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작가와의 대화"라며 "특히 이번 행사는 민병로 소장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다채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